

BEP의 확장, 관객 수익에 부가관련 더하다

(손익분기점)

제작비 규모 3배의 관객 통상적 BEP
부가관련 커지면서 극장의 매출 합산
“시장 변화, BEP 기준도 바뀔 수밖에”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손익분기점 220만명에 다다른다.’

최근 영화 ‘#살아있다’의 흥행에 관한 대체적인 언론 보도 내용이다. 여기에 빠진 게 있다. 제작비 규모다. 손익분기점(Break-Even Point·BEP)은 극장 관람료 등 매출이 제작비 규모와 일치하는 지점으로, 이를 넘어서는 만큼 수익이다. 따라서 제작비 규모를 빼놓고 따지기 어렵다. ‘#살아있다’의 순 제작비는 70억원, 홍보마케팅비를 더한 총 제작비 기준이면 BEP는 더 오를 수밖에 없다.

BEP는 작품의 상업적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잣대이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산출하는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올해 여름 극장가에서 치열하게 경쟁할 세 편의 한국영화로 이를 살펴보는 것도 그 때문이다.

●“통상적으로는 제작비 규모 3배”

15일 개봉하는 ‘반도’의 총 제작비는 190억원, BEP 극장 관객 250만명이다. 29일 선보이는 ‘강철비2:정상회담’(정상회담)은 154억원에 395만명, 8월5일 공개하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는 150억원에 350만명으로 알려져 있다.

영화계는 통상적으로 제작비 규모 3배의 극장 관객수(극장 매출)를 BEP로 삼아왔다. 제작비가 100억원이면 300만명인 식이다. 투자배급사와 극장이 8000~1만원의 한국영화 관람료 수입을 5500원:4500원 비율로 배분한 뒤 투자



영화의 상업적 성패를 가늠하는 기준 중 하나는 손익분기점(BEP)이다. 최근 부가관련 시장이 영향력을 키우면서 BEP 기준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시선이 제기되고 있다. 올 여름 치열하게 경쟁하는 영화 ‘반도’와 ‘강철비2:정상회담’,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위부터)의 BEP도 저마다 다르다.

사진제공 | NEW·롯데엔터테인먼트·CJ엔터테인먼트

배급사 몫 가운데 수수료 등 비용을 뺀 평균 3600~3800원가량 관객 1인당 객단가에 관객수를 곱한 값이다.

따라서 ‘반도’는 약 570만, ‘정상회담’과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는 각각 450만여명의 관객이 BEP이다. 그런데도 각 영화가 내세우는 수치는 왜 이와 다를까.

●“시장이 달라졌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올해 2월 내놓은 ‘2019 한국 영화산업 결산’ 보고서는 지난해 한국영화 실질개봉작 190편 중 순제작비 30억원 이상 상업영화 45편의 평균 총 제작비가 101억3000원으로, 극장 매출로만 BEP를 넘긴 영화는 11편이었다고 썼다. 하지만 극장 외 매출을 합친 총 매출 기준이면 18편이었다.

이제 관객수만을 절대적 수치 삼을 수 없다고 영화계는 본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영화에 대한 해외시장의 관심이 높아졌고, IPTV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부가관련 시장이 커지면서 그 매출 규모도 중요해진 때문이다. 올해 여름 대작들의 BEP도 해외 판매 등 극장의 매출을 합친 뒤 이에 맞춰 극장 관객수를 증진 기준보다 낮게 잡은 수치가. ‘반도’ 측이 해외 185개국에 영화 판권을 선 판매했다고 밝힌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6일 한 투자배급사 관계자는 “제작비 등 작품의 전체 규모에 비춰 성공 여부를 드러낼 필요가 있다면 BEP 기준도 바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욱이 감염병 사태로 극장 관객 동원에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BEP 추산 기준이 달라진 것도 상업적 성공으로 활력을 찾으려는 영화계 기대치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시선이 나오기도 한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황야의 무법자’ ‘시네마천국’ ‘미션’ 영화음악 거장 엔니오 모리코네 별세



모리코네

‘황야의 무법자’, ‘미션’, ‘시네마천국’ 등 술한 영화음악으로 전 세계 관객에게 감동을 안겨준 거장 엔니오 모리코네가 6일(한국시간) 새벽 타계했다. 향년 91세.

이탈리아 로마의 한 병원에서 숨을 거둔 고인은 최근 낙상으로 인해 골절상을 입고 치료를 받아왔다. 유족은 이날 오전 고인의 별세 소식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지며 구체적인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다.

1928년 로마 태생인 고인은 12살에 세계적 음악학교인 체칠리아 국립음악원에 입학하면서 음악의 길로 들어섰다. 트럼펫 연주자, 편곡자 등으로 활동하다 1961년 ‘파시스트’로 영화음악과 인연을 맺었다.

1964년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등장과 함께 울려 퍼지던 음악으로 유명한 ‘황야의 무법자’와 ‘석양의 무법자’로 연출자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과 함께 이탈리아인이 만든 서부영화인 ‘마카로니 웨스턴’의 시대를 알렸다. 이후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 등 세계영화사에 남을 명작의 음악을 맡았던 고인은 500여편의 영화에 아름답고 웅장하며 깊은 여운을 남기는 선율을 더하며 거장의 반열에 올랐다. 2007년 미국 아카데미 공로상을 받았다.

한국과도 인연이 깊다. 1986년작 ‘미션’의 삽입곡 ‘가브리엘의 오보에’에 노랫말을 붙인 ‘넬라 판타지아’를 2010년 KBS 2TV ‘해피선데이-남자의 자격’ 합창단이 불러 큰 인기를 모았다. 2007년 이후 여러 차례 내한해 공연한 고인은 2011년 영화음악 데뷔 50주년 기념 투어의 막을 서울에서 열기도 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연예뉴스 HOT 3

불협화음 AOA, 축제 무대도 불발



지민

전 멤버 괴롭힘 논란으로 위기에 놓인 걸그룹 AOA가 ‘원더우먼 페스티벌 2020’ 무대를 취소했다. 6일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와 주최사에 따르면 AOA는 9월 예정된 페스티벌 무대에 오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최근 전 멤버인 권민아가 그룹 활동 당시 리더 지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지민이 탈퇴하고 나온 만큼 향후 AOA 활동에도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엠넷 ‘구걸’ 법정제재 ‘주의’ 조치 받아

엠넷 경연프로그램 ‘구걸:누가 방송국을 털었나’(구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인 ‘주의’ 조치를 받았다. 6일 방송위에 따르면 ‘구걸’은 최근 방송에서 성행위를 의미하거나 남성 성기를 희화화하는 가사의 노래를 일부만 묵음 처리해 논란이 됐다. 방송위는 시청자에게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공연을 청소년정보보호시간대에 방송해 ‘주의’를 의결했다.

멜론, 1시간 단위 집계 차트 폐지

국내 음원사이트 멜론이 기존 1시간 단위 집계 차트를 6일 폐지했다. 음악 순위를 인위적으로 왜곡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카카오는 이날 “1시간 단위로 재생량을 집계해 줄을 세우는 기존 순위표를 24시간 기준 집계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제목 옆에 표시하는 순위·순위 등락 표기·실시간 변동 그래프도 없었다.

‘유아인 효과’...예능으로 영화 홍보해볼까

황정민·이정재 MBC ‘전참시’ 출연
‘오케이마담’ 엄정화도 ‘놀토’ 녹화

배우 유아인이 형성한 공감대의 영향일까. 여름 극장 개봉영화의 주연배우들이 예능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극장가와 영화계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려는 책임감의 표현이기도 하다.

예능프로그램에서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배우 황정민과 이정재가 나란히 MBC



유아인

우는 고정 출연자가 아닌 만큼 ‘전참시’ 진행자와 만나 살아가는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형식으로 동참한다.

황정민은 이어 영화에 함께 출연한 후배 박정민과 tvN 예능 ‘놀라운 토요일’에도 출연한다. 각각각색 개성과 출연진이 스튜

‘전지적 참견 시점’(전참시)에 출연한다. 8월 5일 개봉하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를 알리는 차원이다. 연예인과 매니저의 일과를 담는 프로그램이지만 두 배우는 고정 출연자가 아닌 만큼 ‘전참시’ 진행자와 만나 살아가는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형식으로 동참한다.

황정민은 이어 영화에 함께 출연한 후배 박정민과 tvN 예능 ‘놀라운 토요일’에도 출연한다. 각각각색 개성과 출연진이 스튜

디오에 모여 벌이는 버라이어티쇼에 합류해 영화에서 미처 보이지 않은 친근하고 편안한 모습으로 시청자에 다가선다.

8월 중순 코미디영화 ‘오케이마담’을 내놓는 배우 엄정화도 예능에 적극적이다. 상대역인 박성웅과 ‘놀라운 토요일’ 녹화를 앞둔 그는 또 다른 예능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다. 지난달 SBS ‘집사부일체’에 2주 연속 출연해 화제가 된 데 힘입어 5년 만의 스크린 복귀작을 소개하는 무대로 예능을 활용하고 있다.

29일 개봉하는 ‘강철비2:정상회담’의 정우성 등도 대중과 만나는 방편으로 예능을 고심 중이고, 15일 공개하는 ‘반도’의 강동원 등 주역들은 9일 오후 8시 한국영화로는 처음 전 세계에 동시 중계되는 트위터 라이브까지 벌인다.

황정음 이번엔 비혼 사수작전...“서른일곱에 로코, 감사할 따름”

KBS 2TV ‘그놈이 그놈이다’ 첫방

“서른일곱 살에 로맨티코미디 드라마 주인공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하하!”

배우 황정음이 6일 시작한 KBS 2TV 월화드라마 ‘그놈이 그놈이다’에 참여한 첫 번째 이유는 “감사함”이라고 말했다. 첫 방송에 앞서 이날 오후 2시 온라인 생중계 제작 발표회에서 그는 “내 나이에 로맨티코미디(로코)를 제안 받았다”고 반기며 “기존 ‘로코’와 비교해 조금 진화한 스토리, 더 성숙한 캐릭터를 보인다”고 차별화를 밝혔다.

‘그놈이 그놈이다’는 자발적으로 결혼을 거부한 34세의 주인공 서현주의 이야기다. ‘비혼선언’을 했다고 남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주변에서 흔히 만나는 친근하고 평범한

30대 여성이다. 그 앞에 저돌적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두 남자가 나타나면서 벌이는 ‘비혼 사수작전’이 주요 내용이다.

실제로는 2016년 결혼해 아들을 둔 아내이자 엄마인 황정음은 이번 드라마에서 전혀 다른 상황에 놓인다. 극 중 서현주와 닮은 점을 찾기 어려울 것 같지만 황정음은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현실주의자인 측면이 서로 닮았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며 “‘하루살이’같은 느낌도 있다”며 웃었다.

황정음의 유쾌한 성향은 로코 장르에 최적화돼 있다. 상대역인 윤현민은 이날 제작 발표회에서 “호흡을 맞춰보니 왜 그렇게 로코에서 히트작을 내놨는지 이해됐다”며 “화를 내거나 억척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연기에서도 사랑스러운 매력을 풍긴다”고 했다.

드라마에서처럼 ‘능력 있는’ 윤현민, ‘연하남’ 서지훈으로부터 동시에 구애를 받는다면 황정음은 어떤 선택을 내릴까. 질문을 받자마자 고민 없이 “월수금은 윤현민, 화목토는 서지훈을 만나고 일요일 하루는 쉬겠다”며 소리 내 웃었다.

황정음은 5, 6월 방송한 JTBC 판타지 드라마 ‘쌍갑포차’의 주연을 맡았지만 이렇다 할 반응을 얻지 못했다. 시청률도 2~3%대에 그쳤다. 공백 없이 내놓은 이번 ‘그놈이 그놈이다’를 통해 부진을 털어낼지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연출을 맡은 최은석 PD는 “황정음은 대본 해석 능력이 탁월해 글로 쓰인 내용을 200% 이상 살리는 배우”라며 “비혼, 기혼, 미혼, 이혼 등을 겪은 30대의 로맨스와 생활상을 심각하지 않게 풀어낸다”고 밝혔다.

이해리 기자



“성숙한 ‘로코’ 보여드릴게요!” KBS 2TV 드라마 ‘그놈이 그놈이다’를 통해 ‘로코 킴’에 도전하는 황정음이 6일 진행된 온라인 제작발표회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 KBS